행위성 / 비대격성 동사의 연쇄

김충명, 이정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Serialization of Verbs with Activity/Unaccusativity

Choong-Myoung Kim Chungmin Lee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고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동사의 연쇄현상(serialization in verbals)에 있어서 단일절(mono-clausal)내에서 소위 복합동사(compound verb)라 불리는 일련의 동사들의 결합 현상을 고찰한다. 연결사(linker/connective)를 매개로 서로 결합하는 동사 연쇄중에는, 일반적으로 동사 하나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비해 2개 이상의 동사가 배열됨에도 동시에 일어나 묶여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single event)을 지칭하는 동사부류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동사 결합간 긴밀성을 우선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역으로 통사적 현상에 의해 그 긴밀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문장 접속의 통어적 구성과는 다른 문법범주 형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속동사구성(연쇄동사)에 있어 행위성/비대격성을 지니는 동사들간의 연쇄현상을 제약하는 여러 원인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이들의 의미적 범주선택을 고려한 거르개로서의 생성여과 규약을 제안한다.

1. 서론

1.1 비대격의 의미와 기능

비대격 술어(uncaccusative predicates)는 Perlmutter (1978)에서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을 통해 확인된 자동사의 한 부류로, 기저구조에서의 수동동사처럼 주어가 아닌 목적어만을 취하지만, 표면구조에서는 그 목적어가 반드시 주어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술어는 자동사이면서도 그 표면 주어로 나타나 있는 원래의 기저구조 목적어를, 자신의 보어(complement)로 취하는 동사부류로 규정되는 것이다[4].

이 개념에 근거한 의미역할 관점의 비대격 술어는 보어에는 의미역할을 주지만 주어[1]에는 의미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There arose a fire' 처럼 허사주어가 오거나 'The fire arose t_i'에서 수동변형의 NP 이동과 같이 격여과에 의한 논항이동(A-movement)으로 설명된다. 즉, 격은 주어에 할당하지만 의미역할은 이동에 의해 생긴, 공범주인 흔적에 할당됨으로써 하나의 연쇄(chain)를 이루고 이로써 비대격 술어가 할당하는 의미역할(theta role)은 대상역(theme role)뿐이며 행위자역(agent role)을 갖는 주어를 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반대로 같은 자동사 부류를 형성하지만 행위자역만을 갖는 동사가 비대격과 대(對)를 이루는 비능격(unergative) 동사를 형성한다.

1.2 피동/비대격의 논항구조적 차이

Y-J. Kim(1990)는 격-표시 할당관점에서의 비대격 구성에 있어 기존의 기능 구조적 관점대신 논항구조적 시각[2]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대격 술는 본래부터 자신의 논항구조에서 외재적 논항을결여한 술어라고[3] 규정한다. 그리하여 비대격, 비능격 그리고 타동 및 피동 구성이 외적논항의 존재 여부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이에 비해 한 동사가 자, 타동사 용법으로 다 쓰이는 경우[4], 자동사문이 비대격 구성을 보이는 논지를 LMT(Lexical Mapping Theory)[5]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시도도 있는데 아래의 예와 같은 상호 파생, 도출 관계를 부여하지 않고 본래의 독립적인 구성의 시각으로 접근한다.[2]

(1) a. 철수가 손을 삐었다. <--> 손이 삐었다.
b. 영희가 손을 잡혔다. <--> 손이 잡혔다.

이상의 시각 차에서 드러나는 비대격은 먼저 그것을 구성하는 동사 부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영주(1990)가 격표시를 중심으로 외적논항을 결여하면서 동시에 내적 논항만을 가지는 경우만을 비대격 구성으로 보면서, 서술어의 구조적 격부여 능력(structural case assigning ability)을 결여한 순수 타동사가 이에 속하며 이러한 진단 기준을 [±상태성], [±행위성]을 도입하여 형식화한다.

반면, 신효필(1992)에서는 전통적으로 능격(ergative)이라 불리던 (18)의 구문을 타동 및 비대격의 대조로 파악하여, 기본구성과 파생구성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논항구조를 보이는 구조적 차이를 들어 능격의 예들 중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을 비대격 범주에 넣고 있다.

다음으로 논항을 취하는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행위성]자질을 보이는 동사들이 두개의 논항을 가지는[dyadic]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논항 설정에서부터 단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monadic] 입장을 견지한다. 문제는 비대격 구성에서 두개의 논항을 취할 가능성이 노출됨으로써 타동구성의 그것과 외형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비대격 구성의 전형적인 단일성분은 D-구조에서의 목적어가 표층의 주어로 실현된 것으로서, 구조상의 문법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분은 유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면, 이 기본 전제를 위배할 소지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T-G.Chung(1992)에서 논의된 '영향입은 구조(Affected Construction, AC)'중 소위 역경 피동태(adversity passives)는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조는 심리적 사동구조로서 경험자 논항의 첨가 및 비대격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2) a.재산을 날리다 a'. 발을 물리다
b.키스를 당하다 b'. 해고를 당하다

위 동사들의 '영향받음(affectedness)'은 그 주어의 심리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어와 기술사건의 관계에 따라 positive, negative, neutral등의 의미특성을 지닐 수 있다.[6]

문제는 이러한 통사구성을 보이는 구문(AC)을 사동구조(causative construction)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는 'causation'의 기본 조건[7]이 만족되는지의 여부가 그 관건중의 하나가 된다. 이를 통해 아래 예문을 관찰한다면 사동구조에 대한 AC구조의 역경 피동태의 논항추가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a. 철수가 영희에게 차를 멈추게 하였다.
b.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뺏겼다.

(3a)는 일반적 사동구조이며, (3b)는 소위 AC구조이다. 먼저 (3b)는 사동관계(causation relation)의 방향이 a와는 달리 역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적 관점에서 사동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가되는 논항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LMT에 근거한 분석과는 유사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사동구조의 (3a)에서의 추가 논항을 사동주(causer)라고 하면 역경 피동태인 (3b)는 피사동주(causee)인 경험주의 추가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5]

아래 (4)는 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 a. 멈추게 하-(Causer (Th)) <-- 멈추다(Th)
b. 뺏기다 (Experiencer (Ag, Th)) <-- 뺏다 (Ag, Th)

(4)와 관련하여 신효필(1992)에서 비대격과 관련된 피동 및 사동 구성의 도출과정을 비교해 보면, 피동 및 사동의 구성은 각기 타동문과 자동문에서 도출되어 논항수의 증감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미적 연관에서 비대격과 근접한 피동은, 타동문 구성에서 행위자가 형태어휘적 작용으로 억제되어 표층에서 사라지지만, 비대격 구성은 원래부터 행위자 없이 대상역으로만 구성되어 양자의 차이를 논항구조 설정에서부터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LMT분석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4b)의 구성은, 비대격 동사가 역경 피동태를 이룰 경우 나타나는 대격 부여현상을 경험자 논항의 추가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 (4a)의 사동구성도 비대격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LMT의 분석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피사동주(patient)논항을 제외하고는 전개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조에 대응되는 타동구성은 의미적 관련으로는 전자와 같은 구조를 보이지만, 피사동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는 양자의 통사적 차이가 분명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대격, 비대격은 상보적인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지 못하고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 의미적 기준마저 동사를 둘로 확연히 분류하는 데는 미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별적 동사가 문장성분에 부여하는 의미역할의 논항구조적 시각으로 일원화하고자 한다.

2. 동사 연속 구성에서의 자동사(비능격, 비대격)

2.1 논항구조적 시각

전절에서 논의된 비대격/비능격의 속성을 기반으로 동사연속구성을 이루는 동사 연쇄체는 통사, 의미적인 특징으로 보아 단일 서술적인 무리와 이중 서술적인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들이 하나의 동사처럼 통사, 의미적으로 구실함에 비해 후자들은 하나의 서술이라기보다는 두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후자가 문장 접속의 짜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전자는 문장 접속의 짜임에서 합성동사가 되는 단일동사로서의 기능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생성에서부터 구별되는 문법 현상 또는 동일한 생성기제를 바탕으로 한 기능의 다양성으로 대별되지만 합성동사와의 시각차는 논외로 남겨 두고 후자의 속성에 기반한 연속동사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 SVC)에 대한 논의로 한정키로 한다.

실제로 연쇄동사내에서 논항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며 표면에서는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는 그 기준이 되는 의미역할 부여에 있어, 구성동사로는 논항구조를 선택하지 못하는 형태적 단일어의 합성동사를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 NP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들간의 결합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V1과 V2가 취하는 논항의 수(argument valency)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3].

(5) 논항수에 따른 결합 유형

i) [1,1]로서 V1,V2가 하나의 논항만을 취하는 경우
  a. 철수가 뛰어 간다. (unerg. + unerg.)
  b.거지가 얼어 죽었다.(unacc. + unacc.)
  c.*철수가 놀아 지쳤다.*(unerg. + unacc.)
  d. 철수가 깨어 달렸다. *(unacc. + unerg.)

ii) [1,2]로서 V2가 2개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
  a. 철수가 담을 뛰어 넘었다.(unerg. + trans.)
  b. 철수가 역기를 누워 들었다. (")
  c. *철수가 강도를 쏘여 죽였다. *(unac+ trans.)

iii) [2,1]로서 V1이 2개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
  a. 철수가 영희를 따라 갔다. (trans.+ unerg.)
  b. *철수가 영희를 밀어 넘어졌다.*(trans.+ unacc.)
  c. *철수가 강도를 때려 죽었다. (")

iv) [2,2]로서 V1,V2가 2개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
  a. 철수가 자전거를 잡아 당겼다. (trans.+ trans.)
  b. 철수가 영희를 들어 안았다. (")

이상의 경우를 설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원리에 의해 연쇄동사의 구성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의미역할 부여 원칙이다.[7]

(6)의미 역할 부여의 원칙(Thematic Role Assignment Principles)
  a. 동사의 모든 의미역할은 그 문의 어떤 논항에 부여되어야 한다.
  b. 한 논항은 다른 동사로부터 같은 의미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반된 의미역할을 받을 수없다(it cannot receive contradictory thematic roles).

(6)의 원리가 위의 다섯가지 경우에 있어 적격성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자동사는 의미역할 부여의 관점에서 대개 주어에 행위자역(agent)을 주는 순수자동사(unergative, 또는 비능격동사)와 주어에 대상역(theme, 또는 주제역)을 할당하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의 두 부류로 나뉘며, Chomsky(1981b)의 문법관계 개념으로는 D-구조에서 전자가 문법적 주어인 [NP, S]가 되고, 후자가 문법적 목적어인 [NP, VP]로서 하나의 통사적 범주를 이룬다. 또 이것은 논항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주어인 논항을 택하는 경우가 비능격동사이며, 논리적 목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대격동사가 되는데 이 관점에서 위의 예를 설명할 수 있겠다.

먼저 위 예의 (5i)은 비대격(unacc.)으로만 구성된(i)a와 비능격(unerg.)으로만 구성된 (i)b의 경우가 위의 원리를 만족시키고 있다. 즉, 두 동사에 의해 주어가 공유(subject sharing)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i)c는 이 둘이 혼합된 경우로서 주어에 행위자(agent)와 대상(theme)의 상충된 의미역할이 부여되어 (6)b를 어김으로써 비문을 산출하고 있다

(5ii)는 한 개의 논항을 취하는 V1과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V2의 결합으로서 [unerg. + trans.]구성은 자유로우나 [unacc. + trans.]구성은 한국어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5iii)은 (5ii)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구조로서 타동사에 후속하는 비능격의 구성은 자연스런 연쇄를 보이지만 비대격이 뒤따르는 경우는 소위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구성으로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5iv)와 (5v)는 모두 타동구성의 예로서 모두 (5i)의 경우와는 달리 목적어 공유(object sharing)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연쇄동사의 특징가운데 하나인 '주어 공유(subject sharing)'는 타동구성을 포함한 모든 연쇄동사에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2.2 논항동일화(argument identification)과정에서

의 의미역간 공기/상충

의미역할의 관점에서는 선행동사와 후행동사의 논항수에 따라 동사 연결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후행동사가 비능격의 자동사인 경우 선행동사도 동일 종류여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절에서 나타난 연쇄동사의 구성중에는 한국에 적용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위의 (6)b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반례가 한국어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래에 주장에 부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예시하였다.

(7) 행위성 및 비대격성의 결합 가능성
i) 주장에 부합되는 예
a. 철수가 일어나/ *깨어 달렸다.
(unerg.+ unerg.) /*(unacc.+ unerg.)
b. 철수가 치이어/ *누워 죽었다.
(unacc.+ unacc.) /*(unerg.+ unacc.)
ii) 행위성 진단 테스트에서의 'agent role'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예[±행위성]
a. 거지가 (일부러) 쓰러졌다/넘어졌다.
b. 철수가 (일부러) 맞았다.
c. 철수가 (일부러) 굶었다.
iii) 주장에 배치되는 예
a. 철수가 쓰러져/엎어져 울었다.(unacc. + unerg.)
b. 철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
c. 철수가 죽어/지쳐 돌아왔다. (")
d. 철수가 돌짓에 실려 나갔다. (")
e. 철수가 경찰서에 끌려 왔다. (")
f. 소가 미쳐 날뛴다. 그가 앓아 누웠다. (")
g. 우리는 인파에 떠밀려 갔다 (")

이상에서 보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대격 동사와 비능격 동사는 동일 성격의 동사와 연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성격이 다른 경우는 (5i)에서처럼 비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예가 있는데 [unacc. + unerg.]의 연쇄는 (7iii)처럼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7ii)에서처럼 경우에 따라 비능격 및 비대격의 쓰임이 둘 다 가능한 동사의 경우, 행위성 동사가 연쇄됨에 따 선행동사의 외형적 비대격성(unaccusativity)이 사라지고 후행동사에 동화되어 그 잠재적 자질이 실현--(iii)a--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현상--(iii)b~(iii)g--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iii)a는 V1이 V2의 자질[unerg.]로 동화되고, 반면 (iii)b~g는 V2가 V1의 자질[unacc.]로 동화(assimilation)되어 나타난 걸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7)의 예에서 보인 동사들의 어휘적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6)b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논항의 계층적 구조내에서[9] 동일 위계의 의미역할의 결합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단서 등이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논항의 계층적 위계속에서 논항동일화(argument identification) 과정을 보인 T-G.Chung (1992)에서도 언급이 된다. 아래 (8)에서 agent와 experiencer의 동일화 현상을 볼 수 있다.

(8) 철수는 사진속에서 국민학교 시절의 모습을 <u>돌아 보았다</u>.

(9) a. 돌다 <Ag, Th>
b. 보다 <Exp, Th> == <Ag, Th>
c. 돌아 보다 <Ag, Th>

즉, '행위자', '경험자'의 각기 다른 의미역할을 갖는 동사가 연쇄를 이룰 때 동일 위계의 의미역할인 경우 논항 동일화 과정을 통해 단일한 논항으로 의미역할의 차이없이 결합한다는 것이다.

2.3 의미 제약 관계(가짐, 수)

동사연속구성은 결합되는 동사들의 개별 어휘적인 의미, 통사적 특징과 '가짐'이라는 선행동사의 후행동사에 대한 의미관계, 자동사와 타동사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삽입과 이동의 통사적인 특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구성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의 가짐이란 행위에 의한 결과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에는 분명하지만, 추상적인 경우에는 가짐의 대상이 명시적이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 동사의연속은 이러한 '가짐'에 의해 모두 설명되는것도 아니다. 선, 후행동사의 의미적 관계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가짐'의 의미 관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선행동사와 후행동사가 적절한 의미 관계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이는 개별동사적인 어휘적 의미관계이므로 일반화 시키기가 어렵다.

상술하면 연결어미 '-아'로 연결되는 두 동사의 연쇄에 있어 의미적인 관점으로만 볼 때 '가짐'이라는 기준이 상당한 해석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구체적일 경우(예, 화초를 가꾸어 가지고 갔다. 물건을 가리어 가지고 갔다. 아기를 감싸 가지고 갔다.)와 추상적일 경우(예, 가라앉아, 거치어, 겸하여, 관련되어, 구속되어, 떠밀려 등등-- 동작의 연결에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다)로 나누어지며 가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행 행위가 후행 행위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의미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로 연결될 수 없는 동사의 연결은 이러한 의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에 의한 선행동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수', 즉 '방법'의 의미로서 걸어, 끌어, 날아, 따

라, 기어, 달려 등이 있다. 그리고 동사연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날 때는 대개 이러한 의미적 관계로 묶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연결어미 '-아'를 매개로 한 후행동사 '가다'의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가, 가리키어, 겪어, 견디어, 기다리어, 깨어, 깨뜨리어, 꿈꾸어, 끼치어, 날리어, 내다보아, 내세우어, 넓히어, 넘기어, 느끼어/ + 가다: 두 동사의 연결이 연계 관계를 이루지 못함, /남아, 내어, 내놓아, 널어, 놓아, 놓치어/+ 가다: 의미충돌로 연결 불가능, /그만두어 그치어/+ 가다:부정의 의미 해석을 갖는 경우도 '가짐'이 없는 것으로 봄, /내밀어, 넓히어, 놀아, 놀라/+가다: 선행동작이 후행 동작과 전혀 무관한 의미관계를 가짐).들은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가짐'의 연결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3. 결합 가능성의 고찰

3.1 '관성' 관점의 해석

(10) 행위성동사(unerg.)
a)unerg.+unerg.
b)*unerg.+unacc.
c)unerg.+trans.
d)trans.+ unerg.

(11) 비행위성 동사(unacc.)
a) unacc. + unacc.
b) ?unacc.+ unerg.
c) *unacc.+ trans
d) *trans.+ unacc.

위 (10,11)에서 나타나는 자동사의 결합유형은 단순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동일 의미역할을 갖는 자동사끼리의 결합(homogeneous merger)이 그 기본 구성이다. 그 외에 비능격은 타동사와의 결합을 보이며, 비대격은 비능격과의 결합을 보이는 예가 있는 것이 전부다. 비대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에는 비대격 또는 비능격의 자동사가 결합될 수 있을 뿐이고 비능격과는 달리 타동사와의 결합 즉, 「비대격 + 타동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의 논항이 두 동사로부터 상반된 의미역할을 받음으로써 의미역할 불일치를 야기한다는 논리로 그 비문법성이 설명되며 또 하나의 배제 유형인 「타동사 + 비대격」도 연결된 두 문장가운데 한 문장의 주어와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대상역(theme role)으로 동일하더라도, 같은 성분을 가리키는 두 NP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될 수 없는 한국어의 문법현상으로 설명된다.

동사와 동사의 연결은 모든 동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행동사와 후행 동사에 따라 그 연결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 동사의 연결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원인을 밝히는 방법은 이들 구성이 문장 구성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문장 구성에 대한 연결의 가능성부터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동사와 동사의 연결에 의한 동사접속구성이라면 선후 동사의 차체 논리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행위성/비대격성 동사끼리의, 그리고 이성질간의 결합을 허용치 않는 배제유표자질(marked feature for exclusion)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능격에서는 unacc.가 후행할 수 없으며, 비대격에서는 trans.가 선행, 또는 후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결합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11b)에서 나타나는데 이른 바 '관성' 관점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동화'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b)로서는 대부분의 결합이 실패하지만, 후행동사(V2)의 선행동사(V1)로의 동화 가능성(또는 그 반대방향)을 언급할 수 있는 예들(죽어 들아오다, 실려 나가다, 끌려 오다, 앓아 눕다 등)은 그 결합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자연스런 쪽에 속하는 것으로써 배제유표자질로 설정하기 힘들다.[6]

그러나 임의의 동사가 결합되어 연쇄동사를 이루는 생성관점의 시각에서 보면, 동사의 의미역할 또는 주어/목적어 공유현상의 어느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 결합이 제약을 받는 예가 많은데(*주어 먹다, *갚아 먹다, *놀아 먹다, *죽어 얼다, *먹어 굽다), 이들의 궁극적인 설명은 통사적 제약으로는 힘들고 의미관계의 고찰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 연속구성을 제약할 수 있는 기제는 의미범주화에 의한 계열적 원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2 의미적 범주에 의한 제약

동사와 동사의 연결은 선행동사와 후행동사의 자동사, 타동사적인 특징에 의해서도 연결상 차이를 보이는데(*보아 늘다/보아 만들다, *따라 늘다/따라 만들다 등등) 이는 이들 동사들이 이끄는 몬장성분의 다름에도 원인이 있다. 두 문장의 문장성분의 이동이나 삽입에 의한 변화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문장성분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동사의 연결은 단순히 두 동사의 의미, 통사적 특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과도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 접속의 가능성과 동사연결의 문제는 개별 동사들의 연결관계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서 밝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Sohn H.M.(1976)의 한국어 복합동사에서의 의미범주 배열규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의하면 행위성(activity)의 의미범주가 최상위의 선택기준으로 위치한다. 여기서의 선

택기준이라 함은 특정한 어휘가 이 배열규칙에 입력될 경우, 동연적(coextensive) 개념의 범주 분류가 일어나는 해당 어휘만이 순서제약의 지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서제약을 준수하는 비문법적 어휘 결합은 배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위성 의미범주에 주어의 의지개입여부를 두어, [-volition]이라는 자질을 부여할 수 있는 비대격 동사 부류에 선점권(preemption)을 줌으로써, 의미역할 분류에 따른 의미적 범주의 내부제약 원리를 지키면서 아울러 전체 의미범주의 순서화 제약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주적 제약을 최상위 기준으로 전치시킴으로써 행위성/비대격성 동사의 결합여부를 결정짓는 거르개(filter)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Sohn Ho-min(1976)에서는 한국어 복합동사에서의 의미 배열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통사적 선택제약의 측면에서만 단어 형성규칙을 기술한 나머지 그 한계가 드러난 규칙으로서의 제약력을 의미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Sohn은 실제세계에서 '여러 행동들이 하나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일어나 것으로 지각되는 행동'들의 그룹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복합동사 부류(이는 SVC구조까지 포함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SVC의 관점으로만 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점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숙어적으로 나타나고(idomatic reading), 통사적으로는 화석화된(fossilized)모습으로 파악한다.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단순동사의 배열에서 연쇄동사 구조로 이행중인 행위성 동사들의 결합을 제약하는 의미범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하위분류되며 또한 이들이 계열적 관계속에서 순서화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래 (12)이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는지는--단지 이들 연쇄동사 자신의 의미적 내용이 동연적(coextensive)인 것으로 개념화된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연쇄동사의 비문법적인 생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 적용해 보자.

(12) 1.Activity>2.Direction>3.Motion>4.Psychological

달려	나-	가-	(보다)
뛰어	올라	와	(주다)
흘러	내려	가다	
뛰어	들어	서다	
끌어	안다		

*(13) 때려 죽다
밀어 넘어지다
쳐 깨지다
잡아 끌리다

(12)의 의미적 기준에 의거한 서열화 규칙이 많은 연쇄동사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13)과 같은 비문법적인 예들이 적잖이 나타난다. 물론 (13)동사들의 V2가 어떻게 'motion'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분류된 의미적 기준에 대한 '근접성(approximation)'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2)의 기준중 4의 'psychological'은 보조동사 구성을 이루는 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쇄동사 구성만으로 한정할 때는 생략해도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12)을 제약하는데 있어 최상위 기준인 행위성을 의지개입 여부[±volition]를 설정하여 구별하되, 동일 기준 내에는 '시간적 연쇄(temporal sequence)'의 제약을 두어 구별한다면 위의 (13)과 같은 비문법적 결합 등이 아래 (14)처럼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비행위성의 비대격 동사류(unacc.)를 행위성 동사의 전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동사연쇄시 초기제약으로 설정, 결합여부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14)1.Act.[-vol]>2.Act.[+vol]>3.Direction>4.Motion

	때려 죽이다	
i) *죽다	때려	
ii)*죽어	때리다	
	밀어 넘기다	
iii)*넘어지다	밀어	
iv)*깨지다	쳐	
	멈추어	서다
	걸어	가다
v)	*걷다	가
얼어 죽다		
vi)*죽어얼다		
	구워먹다	
vii)	*먹어 굽다	
	쏟어 담아 버리다	
viii)	*담아 쏟어 버리다	

우선 (i), (iii), (iv), (v) 등은 순서 제약을 위반해서 비문법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vi) - (viii)은 동일 기준내의 시간조건에 비추어 배제할 수 있다. 문제는 (ii)인데 순서 제약으로는 제외시킬 수 없으나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성 기본원칙에 의거 초기 배열단계의 특정구조 배제원칙 --[unacc. + trans.]결합불가--등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죽어 가다'의 경우, [1 > 4]의 결합으로써 V2의 상적 속성에 의하여 보조동사 부류로서 순서제약은 지켜지지만 사건논항 구조만의 결합을 전제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제는 논항구조의 틀을 적용하여 생성된 예외를 다른 의미 원칙에 의거 배제할 수밖에 없는 충위 혼합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된 대로 동사의 연쇄가 그 자체의 단순한 배열적 의미를 넘어서 단일 사건(single event)의 개념적 속성을 가지는 결합의 본유적 속성에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된다.

4. 결론

연쇄동사(연속동사구성, SVC)의 특징을 통어적 절차에 의한 구성과 형태적 구성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성격에서 파악할 때, 그 통사적 위상은 문장접속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통어적 구성과 단일동사의 형태론적 특징을 보이는 합성동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사구성은 접속문과는 달리, 단일 서술어로서의 특징(시제, 부정, 부정극어, 높임, 부사의 수식/삽입 등)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구성동사 각각이 논항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합성동사와도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격으로, 이 구성이 양 극단의 구조 사이에서 중간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는 문장연결과 유리될 수 없는데, 이것은 두 동사의 연결관계를, 의미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는 성분동사의 논항구조가 동사의 연결을 결정한다는 원리[9]아래 행위성/비행위성 동사들간의 결합에 관련되는 자/타동사들, 그중에서도 자동사의 한 부류인 비대격(unacc.)이 결합제약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참고문헌

[1]김기혁(1995), 국어문법의 연구, 박이정

[2]신효필(1992) "한국어 비대격과 타동구성의 대조,「언어학 논집」1.

[3]영어학 사전(1991)

[4]Y-S. Chung(1992), Linking and Serial Verbs in Korean, SICOL Proceedings. 917-930

[5]T.G.Chung(1992), The Affected Construction & Case in Korean

[6]Chungmin Lee(1993a), Frozen Expression and Semantic Representation, ms

[7]Baker, C.M.(1989), Object Sharing and Projection in Serial Verb Construction, *LI 20.*

〈 내용주 〉

1. 여기서의 주어는 NP이동이 일어나기 전의 there, it등의 허사 주어(expletive noun)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는 앞으로 논의될 연쇄동사의 논항 통합 및 논항구조 결합연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본 논고의 전개에 있어 그 단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비대격 동사가 가지는 논항의 의미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다.
3. 'Unaccusative predicates are predicates which originally lack an external argument in their argument structure representation' (Y-J.Kim,1990:52)
4. 이러한 쓰임을 보이는 동사를 능격동사(ergative verb)로 부르기도 한다.
5. LMT는 Bresnan(1988)이후 발달한 문법모형으로서 문법기능같은 관계개념을 위주로 의미적 술어논항구조(semantic argument structure)와 그 표현구조(expression structure)사이의 gap을 연결 및 관련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론이다.
6. '존이 바람에 모자를 날렸다.'에서 주어와 사건간에는 긍정적 의미도, 부정적 의미도 그리고 어느 것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의 관계가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T-G.Chung, 1992)
7. Shibatani (1976), Dowty (1979)에서는 아래의 두 조건을 제시한다.
   1) 화자는 caused event가 causing event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2) 화자는 causing event뒤에 caused event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8. Agent > Instrument > Theme > Goal
   Experiencer Source
   Causer Location
9. Baker(1989)의 '한 논항은 다른 동사로부터 똑같은 의미역만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의미역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는 대개의 행위성/비행위성 동사만의 연결을 강제한다.